

# 통일우유로 이루는 남북화해와 협력



김인희  
굿네이버스 사업운영 본부장

굿네이버스는 1995년부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달성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우리 단체가 처음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긴급한 구호물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대북지원사업 4차년도가 되는 1998년부터는 지속적인 성격의 개발원조사업으로 대북지원사업이 전환, 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 사업 중 하나가 농축산 개발을 통한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이다.

굿네이버스가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 개발사업은 크게 젖소목장 및 낙농지원사업과 종란 및 양계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젖소목장 및 낙농지원사업은 대안목장, 용강목장, 중화교잡소, 강동군 구빈리 협동농장에 젖소 486마리와 우유생산설비, 사료 및 낙농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한 우유를 목장 인근 어린이 및 육아원 어린이 9,080명에게 보급하여 북한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강동군 구빈리 협동농장은 아주 성공적인 대북개발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굿네이버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원한

196마리의 젖소를 세대 당 4마리씩 분배하여 사육하게 함으로써 젖소 한 마리당 하루 평균 젖 생산량이 13~15킬로그램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사료공급 및 목장 설비를 감안하고 사업실시 초기의 젖 생산량에 비하면 젖소목장 개발사업의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근래 20년 동안 축산업을 방치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싼 우유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먹이겠느냐며 젖소를 키워서 그저 고기소로 잡아먹고 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단체가 젖소를 북쪽에 보내고자 했을 때 북측 관계자들은 현실성을 의심하며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이 발육에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굿네이버스의 젖소사업은 잘 키운 젖소에서 짠 젖으로 우유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먹이자는 목적에서 추진되었고, 이러한 목적에 대해 북측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인식시켜온 결과이다. 또한 젖소사업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생성되는 퇴비로 메마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곡물증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젖소사업은 연쇄적 부가효과를 크게 가져오는 개발사업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유가 갖는 양질의 단백질, 이상적인 체내 칼

습 흡수성, 장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유당을 우유만이 가지고 있는 등 우유는 높은 건강기능성 식품이다. 또한 우유는 완전영양식품으로서 성장기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 권장되는 식품이며, 일상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현재 남한에서는 우유가 남는 상황이므로 영양부족인 북한 어린이에게 우리의 남는 우유를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은 우유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과 함께 영양지원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양부족으로 성장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부, 민간, 국제기구 등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숫자는 약 220만명으로 추산되며, 남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취약계층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 5세 이하 아동과 산모를 대상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대책을 세우고 영양개선, 질병관리 및 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종합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는 외국의 식량원조 등에 의해 이전보다 향상된 편이지만 향후에도 식량원조는 계속되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영양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유가 가진 높은 건강기능성을 감안할 때 우유지원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이러한 대북우유지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굿네이버스는 한국낙농육우협

특히 영양불량 해소를 위해서는 우유가 가진 높은 건강기능성을 감안할 때 우유지원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북쪽으로 지원되는 우유는 '통일우유'로 명명되어 북쪽의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회와 함께 '통일우유 보내기' 공동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북쪽으로 지원되는 우유는 '통일우유'로 명명되어 북쪽의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통일우유'가 단순히 우유를 보내는데 머무르지 않고, 북쪽에서도 '통일우유'가 직접 생산되고 가공될 수 있도록 젖소가 보내지고, 우유가공설비가 지원될 때에야 비로소 '통일우유'는 남북의 협력과 화해, 더 나아가 남북통일을 이루는 확실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